

총리가 국정 주도... 박근혜 '식물 대통령' 받아들이나가 관건

거국총립내각 실현될까

새누리 지도부 구성 촉구
비서진 교체로
파문 돌파하려던 靑 고심
추미에 "오물에 집 지어봐야"
박지원 "진상 규명이 먼저"
야당 반대도 걸림돌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뒤 당사를 나서고 있다. 이날 새누리당 지도부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거국총립내각'을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심상정 대표와 노회찬 원내대표 등 정의당 의원단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에 최순실 씨 수사와 관련해 항의 방문을 마친 뒤 검찰과의 면담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야당에 이어 여당인 새누리당까지 30일 거국총립내각 구성을 촉구하고 나서면서 거국총립내각이 현실화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거국총립내각이란 정쟁 등 비상시에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에 한정되지 않은 중립적인 정부 내각을 의미한다. 여당과 야당이 각각 추천한 인물들을 중심으로 꾸려지는 내각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명확한 의미의 거국총립내각이 수립된 사례는 없었다고 학계에서는 보고 있다.

다만 1992년 9월 노태우 대통령이 제14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거국내각 수립을 선포, 여야의 합의에 따라 선출된 현승종 국무총리의 중립 내각이 출범했다. 그러나 이 경우는 대선을 불과 2개월 앞둔 시점이라 여당에 부담이 없었고, 일종의 '정권

마무리 내각' 차원이었기에 여야 모두가 참여하는 거국내각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 방안은 정치권에서 '하야'와 '탄핵'을 대신해 제시한 방안으로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배제하는 형태의 내각 구성 방안이다.

세부 사항은 논의를 거쳐야 하나, 거국총립내각이 구성될 경우 여야가 합의로 추천한 새 총리가 국정을 주도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만약 새 총리가 국정을 주도하게 될 경우 박 대통령은 모든 내지에서 손을 떼고 외교·국방 등의 분야에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문제는 박 대통령이 이 요구를 받아들일 것인가 여부다. 아직 청와대의 공식 반

응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비서진 교체를 통해 파문을 돌파하려 했지만 여당까지 거국총립내각 구성을 촉구하면서 또 다시 고민에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에서는 여당의 거국총립내각 요구 전부터 박 대통령이 청와대 참모진 개편을 완료한 뒤 추가로 황교안 국무총리 교체와 책임총리 인선 등 단계적 인적쇄신에 나설 것이라 전망이 나왔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러한 인적쇄신 수준으로 이 위기를 돌파하기는 힘들어졌다. 일단 박 대통령은 각계 원로들의 고언을 더 들으며 여론을 주시할 가능성이 크다.

또 여당의 거국총립내각 요구에 대해 야당이 반발한 것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민주당 추미에 당대표는 이날 최고위원

회의에서 "새누리당이 오늘 거국내각을 언급했다는데 이제 와서 새누리당 얘기 듣고 싶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다"고 밝혔다.

추 대표는 "헌정이 파괴되고, 대통령의 헌법상 권리가 사고 교주인 최순실에 헌납된 지가 4년이 넘었는데 이제 와서 오물 같은 데다 집을 지으면 집이 지어지겠느냐"고 말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여당의 거국내각 구성 제안에 응할 필요가 없다"고 일축했다. 정권 차원에서 국정농단 사태 진상을 은폐하려는 정황이 최씨의 전격적인 귀국과 검찰의 최 씨 수사 일정 조율 등으로 드러난 만큼 이제는 진상 규명이 먼저라는 주장이다.

/*박지경기자jtkpark@kwangju.co.kr

청와대 신임 수석 2명 프로필

특수 수사동... BBK 무혐의 처리

최재경 민정수석

검찰 재직시 뛰어난 수사능력과 정확한 판단력으로 유명했다. 겸손하고 청렴강직한 성품으로 조직 안팎의 두터운 신망을 받았다.

대검찰청 중수부장, 서울중앙지검 3차장을 지내는 등 특수수사의 최고 실력자로 꼽히며 굵직한 사건을 빈틈 없이 처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시절에는 이명박 당시 대선후보가 연루된 도곡동 땅 차명보유 및 BBK 주가조작 의혹 등을 수사했다. BBK 사건 처리에 대해 야권에서 비판론이 제기되기도 했다.

대검 수사기획관을 지내며 세종증권 매각비리를 수사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건평씨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을 구속했다. 다만 인천지검장 당시 세월호 사건 때 유병인 체포모습 회장 수사 실패의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했다. 부인 황경희(56)씨와 사이에 1남 1녀.

▲경남 산청(54) ▲대구·서울대 법대 ▲사시 27회(사법연수원 17기) ▲해남지청장 ▲대검 중수부장 ▲대구지검장 ▲법무연수원 석좌교수

배성례 홍보수석

방송에 26년을 몸담은 언론인 출신. 1984년 KBS에 입사해 기자 생활을 시작했으며, 1991년 SBS 개국에 맞춰 취사를 옮겨 지난 2009년까지 심의팀장, 홍보팀장 등을 지냈다.

2007년 SBS 남북교류협력재단장을 맡았을 때 북한을 방문해 북한 조선중앙방송과 올림픽·월드컵 중계권 제공 협상을 이끌었다. 기자 생활을 끝내고 나서는 서울예술대학교 방송영상과 교수로 교편을 잡았다. 그러다 강경희 전 국회의장과 인연으로 지난 19대

국회 대변인으로 발탁돼 2012년부터 2년 간 활동했다. 지난 2014년 7·30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고향인 경기도 김포에 출마하려고 사표를 제출하고 새누리당 조직위원장으로 공모했으나 밀려 출마하지 않았다. 부인과 2남.

▲서울(58) ▲경기도 ▲서강대 영문학과 ▲KBS 보도국 기자 ▲SBS 보도국 기자 ▲서울예대 방송영상과 교수 ▲19대 국회 대변인

KBS·SBS 기자 출신... 국회 대변인 지내

최순실 귀국 '보이지 않는 힘' 작용했나

"뚝들어간다" 이틀만에 귀국
관련자 수사도 짜 맞춘듯
野 '기획설·증거인멸' 제기

30일 '비선 실세' 최순실(60·계명 후 최서원)씨가 독일로 출국한 지 57일 만에 전격 귀국한 것은 청와대의 요구와 함께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고 촛불 집회 등 여론 압박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당초 최씨는 지난 27일 언론 인터뷰에서 건강상 문제로 당장은 귀국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검찰이 26일 최씨의 자택을 압수 수색하고, 법무부 장관도 최씨의 국내 송환을 위해서 여러 무효화 등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히면서 최씨 역시 상당한 심리적 부담을 느꼈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최씨의 귀국 지연이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여론에 불을 붙인 것도 귀국 결정에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최씨의 귀국 배경에 보다 큰 그림이 있지 않느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최씨가 한국행을 결심하고 실제 이동을 시작한 시각은 이른바 한국 시각 28일로 추정된다. 이 시점은 최씨의 최측근 고영태씨와 최씨 의혹을 폭로한 이성환 전 미르 사무총장이 검찰 조사를 받고, 박 대통령이 수석비서관에 일괄 사표 제출을 지시하는 등 의혹과 관련한 동시다발적 움직임이 가시화됐기 때문이다.

당장 야권은 최순실씨 귀국과 관련, 일제히 사건 기획설과 증거인멸 우려를 제기하는 등 공세에 나섰다.

민주당 추미에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최순실 입국에 검찰수사관이 동행했다고 한다. 검찰이 범인 은닉과 증거 인멸에 공모한 사건이 벌어진 것인가. 과연 누구의 지시인가"라며 "대통령이 은폐를 작심하지 않았다면 가능하지 않을 일"이라고 비판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의혹의 당사자였던 고영태씨와 중국에 있던 차은택씨, 독일에 있던 최씨의 귀국 시점과 일정이 너무 딱 떨어지는 공모 행동인데다, 변호인까지 준비

비해 브리핑하면서 검찰 수사에 대비하는 모양새가 우려스럽다"면서 "정권 차원에서 진상의 정확한 파악을 막으려는 세력들을 비호하는 흐름도 보이는 것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도 이번 최순실씨 귀국과 검찰의 수사과정에 대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안철수 전 대표는 이날 팬클럽 주최 '국민희망 비상사국 간담회'에서 "최순실이 귀국할 때 체포하기는커녕 국가 공무원이 귀국할 때 체포하기는커녕 국가 공무원이 귀국할 때 체포하는 보도가 있었다. 만약 사실이려면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직무유기"라며 "당장 최순실을 긴급 체포해 공정한 수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

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HNT 하나투어

“여행 잘 하는 습관” 하나투어, 하나면돼!

하나투어 온라인여행박람회

기간 : 2016. 11. 7(월) ~ 11. 27(일) / 3주간

추천 여행지 **규슈**

하나투어 온라인 여행박람회

공연일시 : 2016년 11월 6일 (일요일)
공연장소 : 후쿠오카 유메니티 노가타 대홀
공연시간 : 14:00 ~ 15:00 (약 1시간 예정) ※현지사정에 따라 공연시간 등은 변경될수 있습니다

총 상품가 : 205,000원 부터~ [유류할증료 포함]
[현지지불 : 가이드&기사 경비 30,000원 / 선택경비 : 없음]
출발일 : 선박(부관훼리) : 2016년 11월 4일 & 5일 [3박 4일]
선박(비틀/코비) : 2016년 11월 5일 & 6일 [2박 3일]
항공(부산출발) : 2016년 11월 4일 & 5일 & 6일 [2박 3일]
항공(부산출발) : 2016년 11월 4일 & 5일 [3박 4일]
※ 선박/항공 및 출발 날짜에 따라 일정 및 상품요금은 다소 상이합니다.

홍진영 콘서트
규슈여행

① 현지공연 홍진영 미니 콘서트 관람
② 일본 온천욕 체험
③ 하나투어 온천타올&우비볼 인당 1개씩 제공 [선박상품 한정]

문의:프리미엄 로드샵[광주 총장점] ☎ 062)228-1199

런던증권거래소 상장기업 | www.HanaTour.com